옛이야기

방귀 시합

나이
- 유아(3~5세)

주제
- 목표: 등장인물들이 오해를 풀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와의 갈등 해결 방법을 익힌다.
- 주제: 화해, 협력

핵심어
- 화해, 협력, 방귀, 시합, 오해, 절구통, 달나라 토끼

한국 문화
- 목표: 재료를 빻거나 찧거나 가는 데 사용한 전통 생활 도구의 이름과 쓰임새를 안다.
- 요소: 절구통

한국어
- 목표: 방귀 소리처럼 우리 몸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를 알아본다.
- 단어: 뿡뿡, 짝짝, 콩닥콩닥, 꼬르륵
- 표현: 엉덩이 방귀 소리 뿡뿡, 손뼉 짝짝, 심장이 콩닥콩닥, 배고플 때 배에서 꼬르륵

✿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방귀 시합'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방귀를 뀌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방귀를 한 번도 뀌지 않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방귀를 살짝만 뀌어도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랫마을에도 대단한 방귀쟁이 여자가 살았지요. 두 방귀쟁이는 서로 자기 방귀가 더 세다며 방귀 시합을 벌였어요.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방귀 시합'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뀌는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방귀를 '뽕뽕' 살짝만 뀌어도 온 마을이 덜컹덜컹 흔들렸어요. 냄새도 정말 고약했어요.

"나 방귀 뀝니다. 다들 코 막고 나무 기둥 붙잡으시오."

하루는 방귀쟁이 남자가 방귀를 뀌려는데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방귀쟁이 남자 때문에 아랫마을로 이사 가려고 했더니, 거기엔 더 대단한 방귀쟁이 여자가 산다네그려."

"정말? 아랫마을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건가? 허허허."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진 방귀쟁이 남자는 나오려던 방귀가 쏙 들어가고 말았지요.

'흥, 감히 누구 방귀와 비교를 해?'

방귀쟁이 남자는 아랫마을에 가서 제대로 된 방귀 맛을 보여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 좀 물읍시다. 여기에 방귀 잘 뀌는 아주머니가 사는 곳이 어디요?"

방귀쟁이 남자는 방귀쟁이 여자가 사는 집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방귀쟁이 여자는 집에 없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에이 뭐야! 괜히 왔잖아! 방귀 맛이나 좀 남기고 갈까? 뽀옹!"

방귀쟁이 남자가 방귀를 '뽀옹' 뀌는 순간, 마침 집에 들어오던 방귀쟁이 여자 아들이 방귀를 맞고 굴뚝으로 쑥 날아갔어요.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사뿐사뿐 걸어갔지요.

집에 들어온 방귀쟁이 여자는 아들이 굴뚝에 박힌 걸 알고 화가 났어요.

"어머니, 저기 윗마을로 가는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 방귀를 뀌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일렀어요. 과연 윗마을로 향하는 어떤 남자가 보였어요.

"감히 우리 아들에게 방귀를 뀌다니! 어디 너도 한번 당해 봐라!"

방귀쟁이 여자는 마당에 있던 절구통을 향해 방귀를 '뿌웅' 뀌었어요. 그러자 절구통이 하늘을 향해 슝 솟아올라 방귀쟁이 남자에게로 향했어요. 마침 위를 올려다보던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뿌웅!"

남자는 절구통을 향해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이번에는 절구통이 방귀쟁이 여자 집으로 향했어요.

"흥, 보통이 아니구나."

이야기 들려주기

방귀쟁이 여자는 날아오는 절구통을 보며 다시 힘을 줘 방귀를 뀌었어요.

"아니, 저 아주머니 방귀도 보통이 아닌걸."

방귀쟁이 남자도 재빨리 몸을 피하며 방귀로 절구통을 날려 보냈지요. 절구통은 '뿡뿡' 방귀 소리와 함께 이쪽저쪽 하늘 높이 날아다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방귀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해?"

"우리 집 기둥 무너지네. 제발 방귀 좀 그만 뀌시오!"

깜짝 놀란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왔어요.

"여보게들, 코 막고 어서 나무 기둥 붙잡으시오."

방귀쟁이 남자가 소리쳤어요.

"저 방귀쟁이 남자가 우리 아들을 굴뚝으로 날려 버렸단 말이오!"

방귀쟁이 여자가 방귀를 뀌면서 소리쳤어요.

"빈집인 줄 알고 그랬소. 뿡!"

날아오는 절구통 때문에 방귀를 멈출 수 없었던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일부러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제발 그만두시오."

"그래요, 계속 그렇게 둘이 방귀를 뀌면 마을 전체가 폭삭 무너지겠소."

방귀 때문에 흔들흔들, 덜컹덜컹 정신없는 마을 사람들이 애원했어요. 방귀쟁이 남자와 여자도 오해가 풀리자 방귀를 그만 뀌고 싶었어요. 하지만 날아오는 절구통을 피하려니 멈출 수가 없었지요.

"이보시오, 있는 힘껏 방귀를 뀌시오. 절구통을 하늘로 날려 버립시다."

두 방귀쟁이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힘을 모아 방귀를 뀌었어요.

"뽀옹!"
"뿌웅!"

구름 위를 지나 하늘 높이 올라간 절구통은 달나라까지 날아갔어요.

"어, 이게 뭘까?"

절구통을 발견한 달나라 토끼가 말했어요.

"우리 여기다 떡이나 찧어 먹자."

토끼들은 그날부터 절구에 떡을 쿵더쿵쿵더쿵 찧어 먹었다고 해요.

이야기 들려주기

"이 절구에 떡을 찧어 먹으면 왠지 고소한 냄새가 난다니까!"

한편, 방귀쟁이 남자와 여자는 온종일 방귀를 뀌었더니, 그날 이후로 방귀를 보통 사람들처럼 작게 뀌었다고 해요.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방귀 때문에 코 잡고 나무 기둥 붙잡는 일이 없어졌지요.

✿ 구연활동내용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남자가 있었지요. 그 남자의 방귀는 어떤 소리를 내나요?

네, '뽀옹', '뿌웅', '뿡뿡' 재미있는 소리가 나요. 방귀 소리는 우리 몸에서 나는 소리지요. 이처럼 몸에서 나는 소리는 다양하답니다. 손뼉을 치면 '짝짝', 심장 소리는 '콩닥콩닥', 배가 고플 때는 '꼬르륵' 소리가 나요. 몸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를 한번 찾아보아요!

여러분, 윗마을에 사는 방귀쟁이 남자가 아랫마을 방귀쟁이 여자를 만나 누가 더 방귀가 센지 방귀 시합을 했어요. 그 시합에 쓰였던 도구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마당에 있던 절구통이었지요. 절구통은 곡식을 빻거나 떡을 찧을 때 사용하던 전통 생활 도구예요. 대부분 나무나 돌로 만들어졌고, 안에 곡물을 넣고 절굿공이로 내리쳐 껍질을 벗기거나 반죽을 만들었지요. 특히 명절이나 잔칫날에는 절구통에 떡을 찧는 모습이 아주 흔했답니다. 한국 전통 생활 도구인 절구통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방귀 시합'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옛날, 윗마을에는 방귀를 엄청 잘 뀌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랫마을에 더 대단한 방귀쟁이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랫마을로 대결하러 갔지요. 두 사람은 방귀로 절구통을 서로에게 날리며 시합을 벌였어요. 하지만 오해가 풀리자, 절구통을 하늘 높이 달나라로 보냈지요. 절구통을 발견한 달나라 토끼들은 그걸로 떡을 찧게 되었어요. 그 뒤로 방귀쟁이 남자와 여자는 보통 사람처럼 방귀를 작게 뀌게 되었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대요. 정말 별난 방귀 시합이었지요? 여러분도 가끔은 오해 때문에 친구와 다툴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